



허현주(Heo Hyunju)

<개인전>

2024 찬란한 시간 (밀스튜디오, 초대전), 서울

시간의 숲 (더숲아트갤러리 초대전), 서울

2023 사이의 시간 (반포대로 5), 서울

생의 순간 (스페이스mm 초대전), 서울

2022 살아가다 (오재미동 갤러리 선정작가전), 서울

소진 (더숲 갤러리 초대전), 서울

2021 무기력한 사물- 드로잉, 판화전 (살롱리아 초대전), 서울

2020 사라지는 것들의 순간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18 사용할 수 없는 물체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초대전), 서울

<그룹전>

- 2024 07 방랑자 환상곡, 6인 기획전, 아미미술관, 당진
03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전- 캘리포니아 꿈과 서울의 꿈
AJL 갤러리.미국, LA
01 선이 만든 세상, 드로잉 기획전, 하나갤러리
2023 11 서울 아트쇼, 코엑스, 서울
11 내일로 향하다, 현대작가회정기전, 더숲, 서울
10 나레, 무무헌 기획전, 서울
08뱅크아트페어, 세텍, 서울
06 아득하다, 갤러리 hoM 기획초대 3인전, 서울
05 내 삶을 애도하는 방식, 아트스페이스이색 기획초대전, 서울
04 The path of entry, 개관초대전, Alle Gallery, 서울
01 제2회 더숲 아트페어, 더숲아트갤러리, 서울
01 선이 만든 세상, 드로잉 특별전, 하나갤러리, 서울
2022 11 빛, 색 그리고 직관(현대작가회), 더숲아트갤러리, 서울
11 밀 스튜디오 선물전, 밀스튜디오, 서울
10 EMG 아트페어, 더숲아트갤러리, 서울
10 EMG 정기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90 인덕대학교 30주년 기념전
08 지금, 우리 정기전, 가고시포갤러리, 서울
08 다부동미술 구하기, 오모크갤러리, 칠곡
03 키미아트공모 선정작가전, 키미아트, 서울
2021. 12 지금, 우리 (공간35), 서울
10~12 파트론 기획 미술주간2021 온라인 전시
10 EMG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10 현대작가회 그룹전 “열정, 피어나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09 비긴즈아트페어, 사이아트갤러리, 서울
2020 12 국제아트페어, 벅스코, 부산
11 EMG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01 start up전, 갤러리 마롱, 서울

2019. 06 현대작가회, 하늘 갤러리, 구리
10 EMG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09 상상적 사각속으로,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18 10 EMG전, 갤러리인사아트, 서울
06 ask&answer 현대미술 작가회, 양평세미원, 양평
06 의정부 아트페스티벌,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
10 추계예술대학교 동문전, 현대미술 공간 C21, 서울
2017 09 MOMENT, 양평 군립미술관, 양평
10 EMG전, 갤러리환, 서울
12 현대작가회, 거울속의 춤 갤러리, 포천
2016 05 현대미술작가회, 갤러리환, 서울
09 EMG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10 SKAF아트페어, 롯데호텔, 서울
11 추계예술대학교 동문전, 길 - 돌아보다, 현대미술 공간 C21, 서울
2015 10 EMG전, 갤러리환, 서울
05 길 잃은 길,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10 추계예술대학교 동문전, 가을/ 빛을 비추다, 금보성 아트센터, 서울
2014 06 여름공감전, 경민현대미술관, 의정부
10 EMG전, 갤러리환, 서울

작가 노트

- 나의 주된 관심사는 존재 양식이 변화하는 순간이다.

있음에서 없음으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용할 수 있는 물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체로, 안에서 밖으로, 즉 사이의 것에 대한 탐구이다.

물체는 공간에 고체, 액체 혹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나”라는 감정과 의식을 통해 존재 방식은 고체에서 액체로 혹은 어떤 상태로 변이 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사물의 해체를 통해 경계선 상의 존재를 표현하고 싶다 -

사라지는 것들의 순간

살아가고 존재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자 한다. 모든 것들은 태어나거나 생성된다. 그리고 살아가고 지속하고 사라져간다. 존재는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순간 속에 있다.

살아갈수록 사라지는 것, 채워질수록 비워지는 것은 모래시계 공간에 모래가 채워질수록 반대편공간은 비워지는 그것과 닮았다. 나의 작업은 작은 세필 붓으로 캔버스를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빈 캔버스에 수 만 번의 점과 선으로 흔적을 기록하고 캔버스는 사라짐으로 채워진다. 움직임의 흔적은 캔버스에 채워지고 나 또한 비워져 간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것과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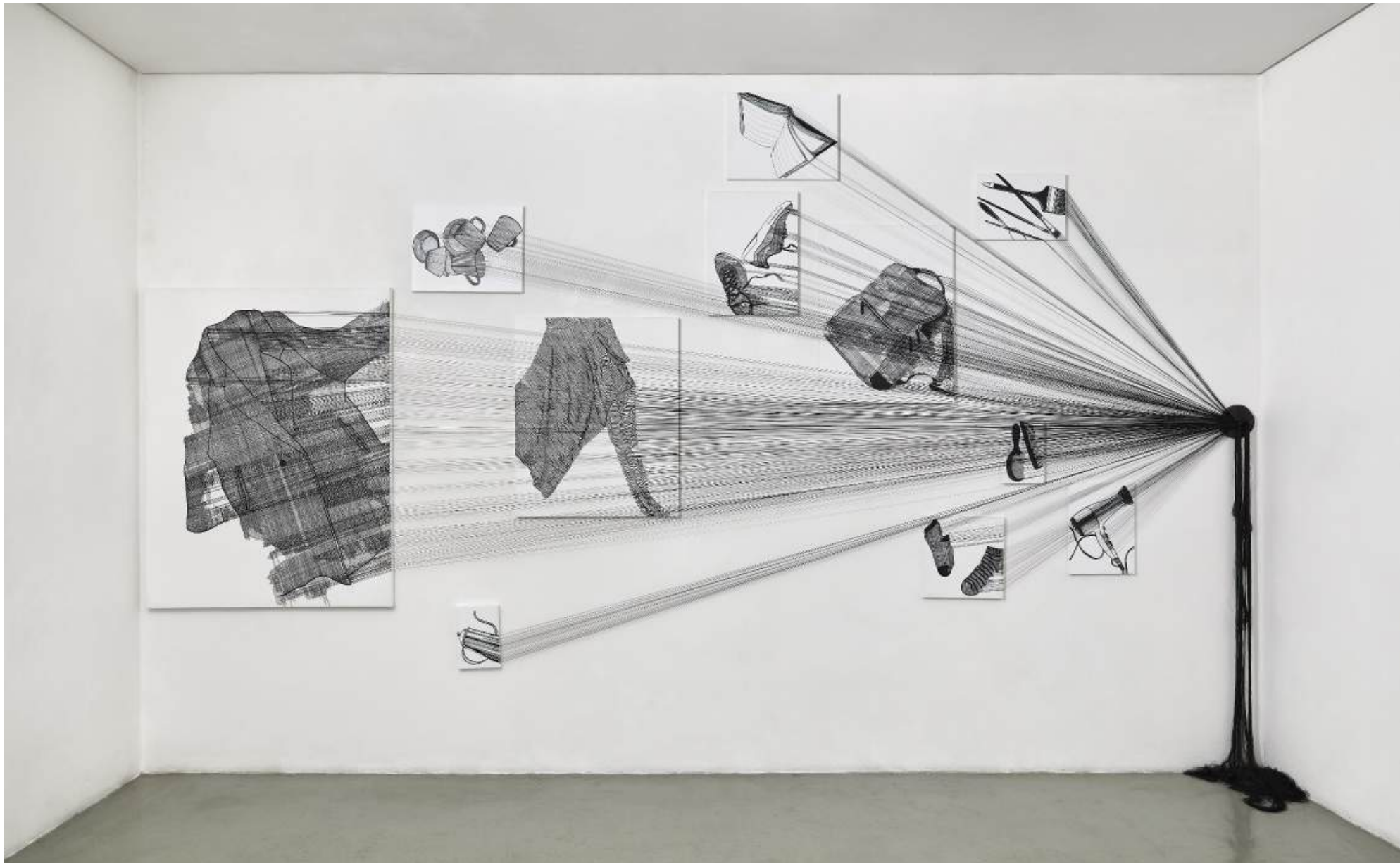
작품이 채워지는 과정을 사진 찍고, 시간이 갈수록 사라짐으로 채워지는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시 전경 2024 (아미미술관)



전시 전경 2024 (밀 스튜디오)



전시 전경 2022 (키미아트갤러리), 실 설치

재가 되는 사람들

재가 되는 사람들 연작은 매년 같은 장소에 가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연속 촬영으로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것을 캔버스에 해체한 작업이다.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있는 작업으로 80호 작업을 연결하여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 8점이 작품을 이어 작업해 오고 있다. 시간속에 사람의 움직임은 재가 되어 흩어져간다. 보이지 않지만 긴 시간 속에서 봤을 때 사라져가고 있는 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을 점으로 환원하고 있다.

존재는 생성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사라져간다. 시시각각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순간 속에 서있는 나를 자각한다. 나 또한 살아가고 사라져가는 순간 속에 있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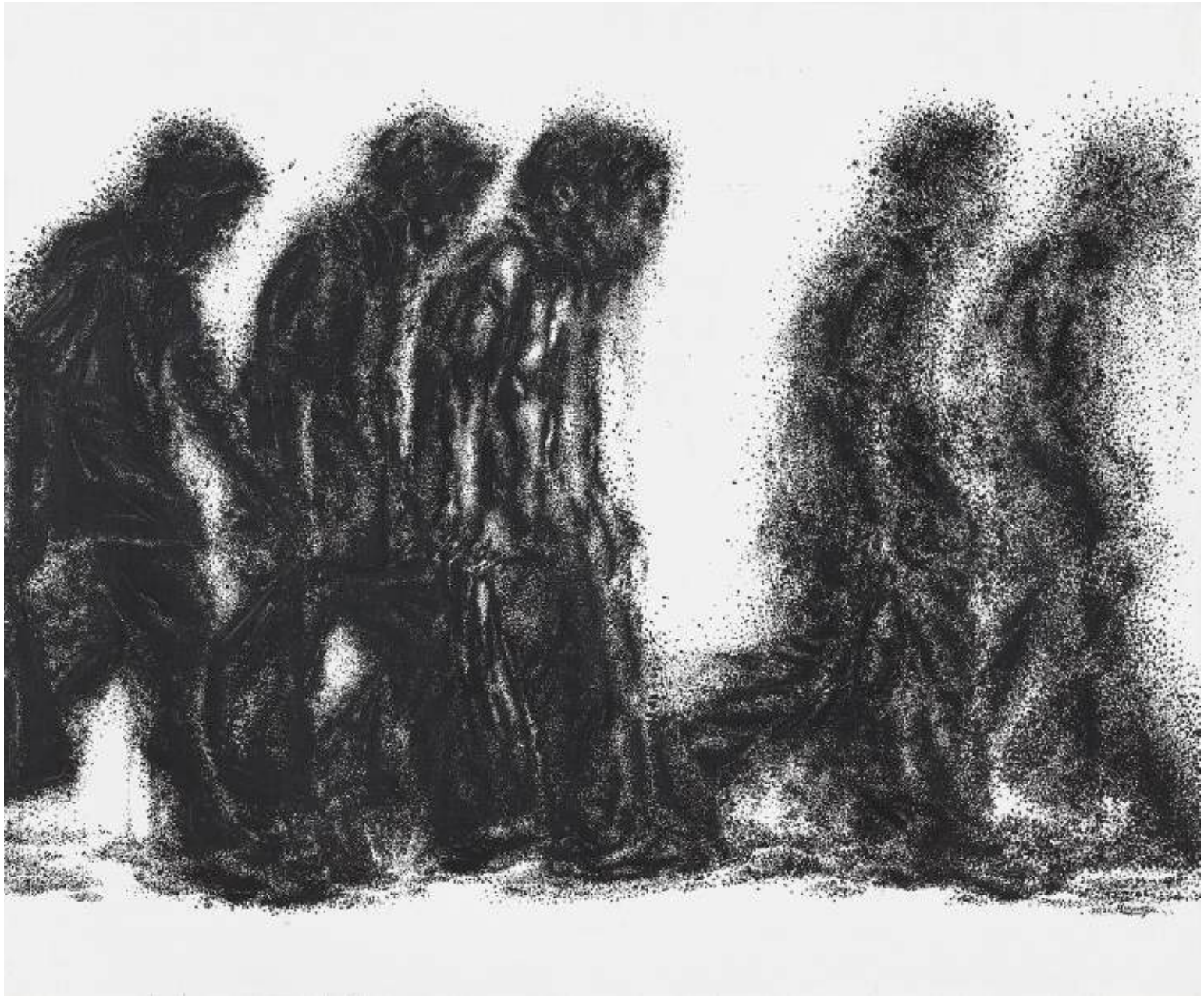
재가되는사람들 2024-2_ acrylic on canvas_ 145.5 ×112.1cm_ 2024



재가 되는 사람들_2022 acrylic on canvas_ 145.5 ×112.1cm_ 2022



재가 되는 사람들_2020 acrylic on canvas_ 145.5 ×112.1cm_ 2020



걷는 사람 acrylic on canvas_ 72.2X60.6cm _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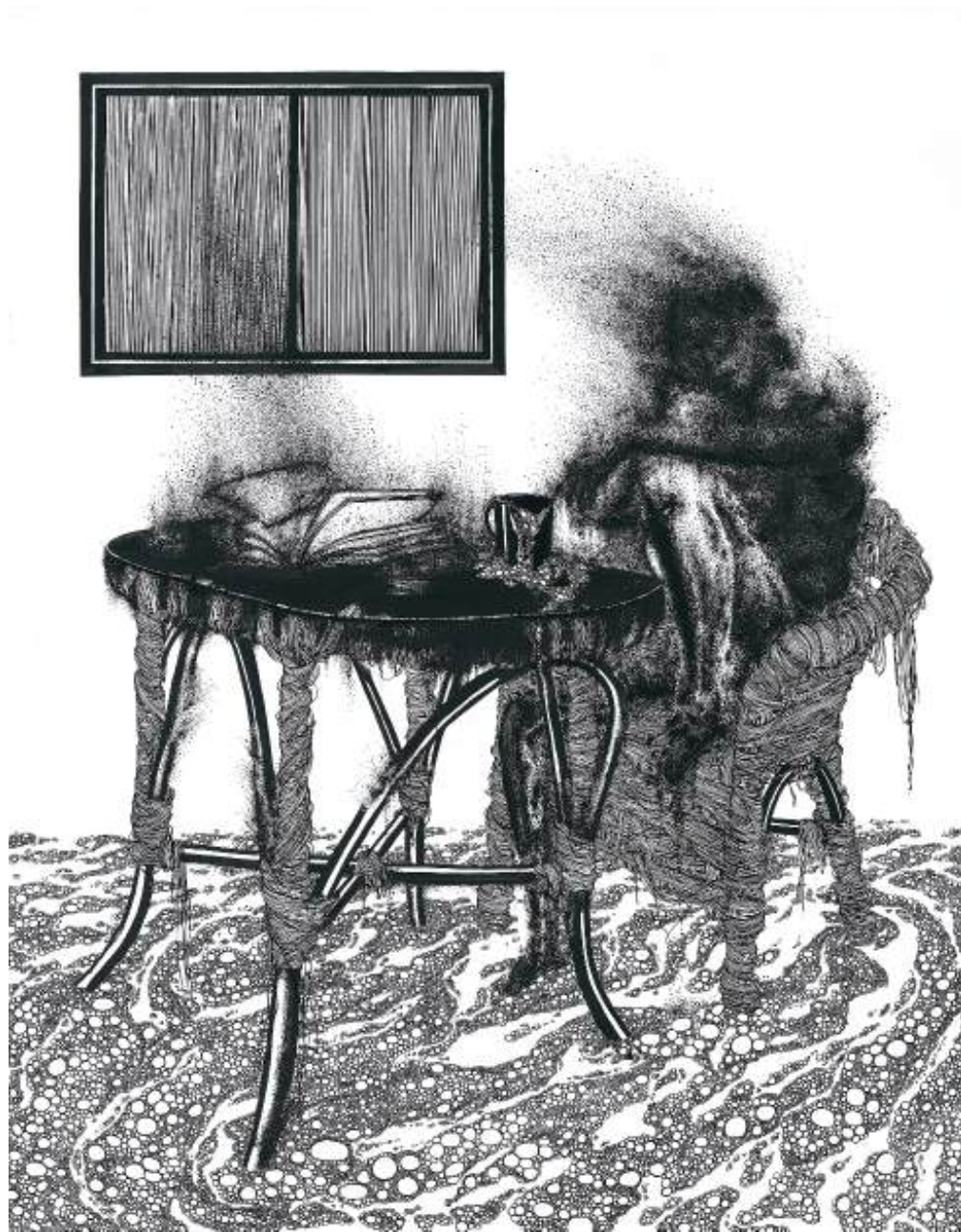
소진- 타버리고 있는 존재의 순간

고된 하루를 끝내고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이미지로 형상화 하였다. 사람이나 물체나 고유의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사라져 가는 순간을 드로잉 하였다. 의자에 누워 쉬고 있으나 존재는 격렬하게 다 타버려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고 그가 앉아 있는 의자 또한 형체가 풀려 사라지고 있다. 에너지를 다 쓰고 있음에서 없음으로 사라지고 있다.

달리는 속도에 중독되어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소진되고 있는 현대의 인간상, 즉 작가 자신을 대변한다.



피곤한 잠_acrylic on canvas_ 116.8×91cm _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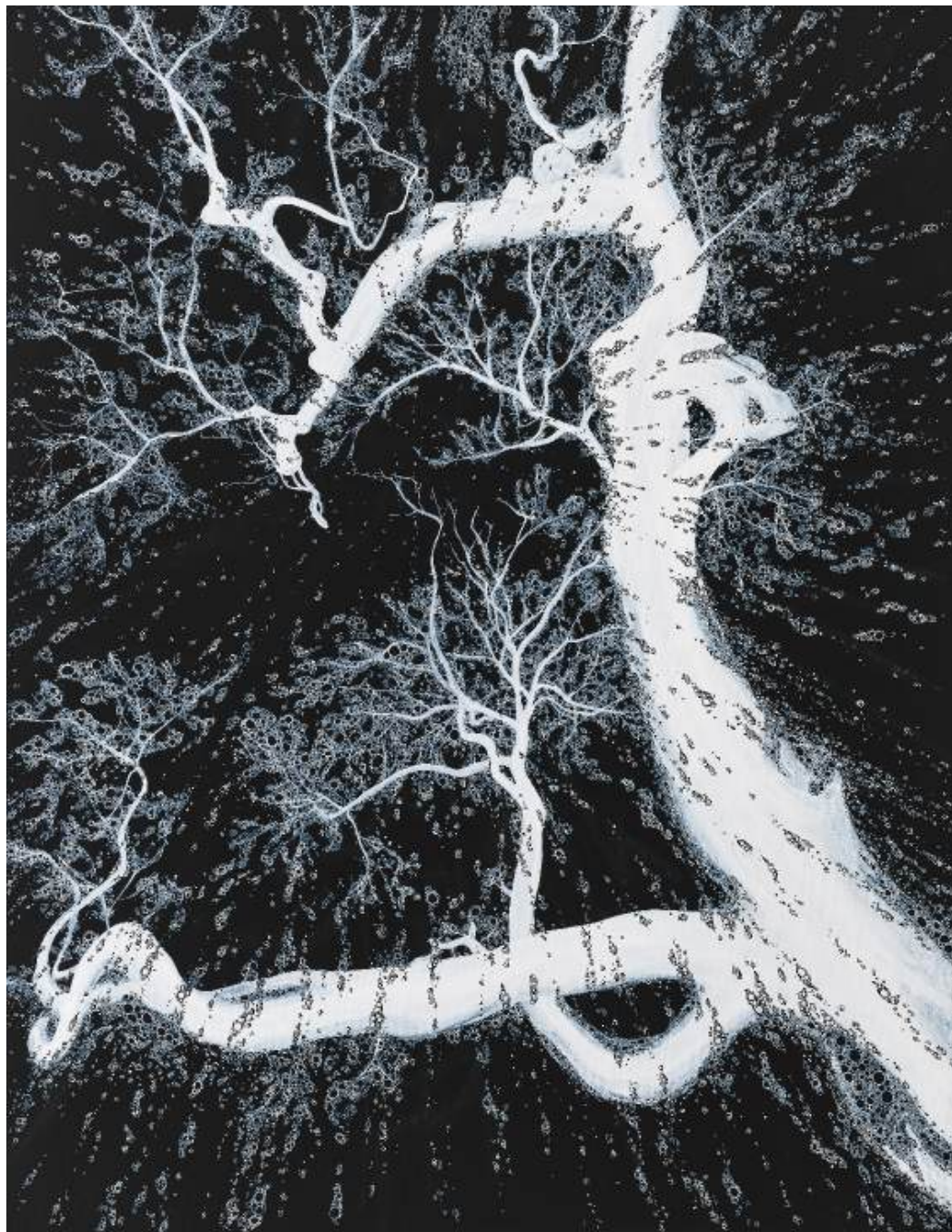


목마름_acrylic on canvas_ 116.8×91cm _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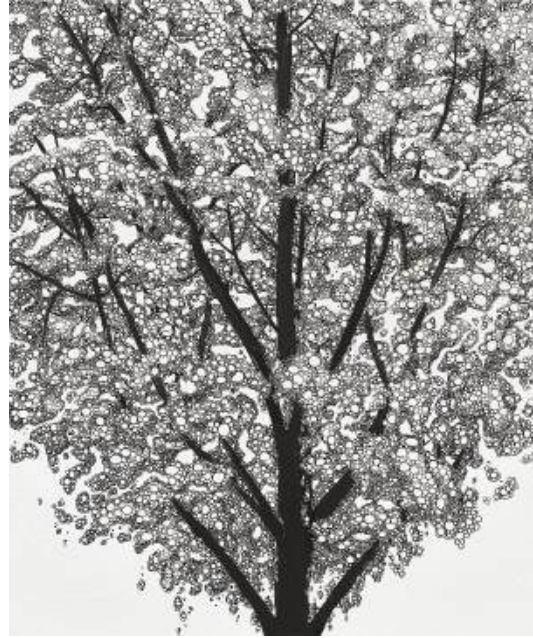
나무의 초상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삶에서 길 가다 우연히 마주한 나무들의 모습 속에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변하는 나의 모습과의 동질감을 느낀다. 겹겹이 움직이며 채워 나가는 가지의 생명과 사람들이 살아온 시간을 담은 주름진 얼굴은 닮아 보였다. 생명으로 가득 채운 무성한 나뭇잎에서 곧 사라져갈 생명의 허상을 느낀다. 가득 채워지는 것에서 비워지는 생명을, 비워진 것에서 움직임으로 가득 찬 살아온 흔적을 본다.

길에서 만난 나무들의 실루엣에 긴 시간 수만 번의 거품과 선으로 생명과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고 캔버스는 채워진다. 나의 긴 시간 반복된 움직임으로 작품은 채워지고 세계도 완성되어 간다. 채워지고 비워지고 변화하는 자연 속에 우리도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려 한다.



찬란한 시간_acrylic on canvas_ 145.5 ×112.1cm_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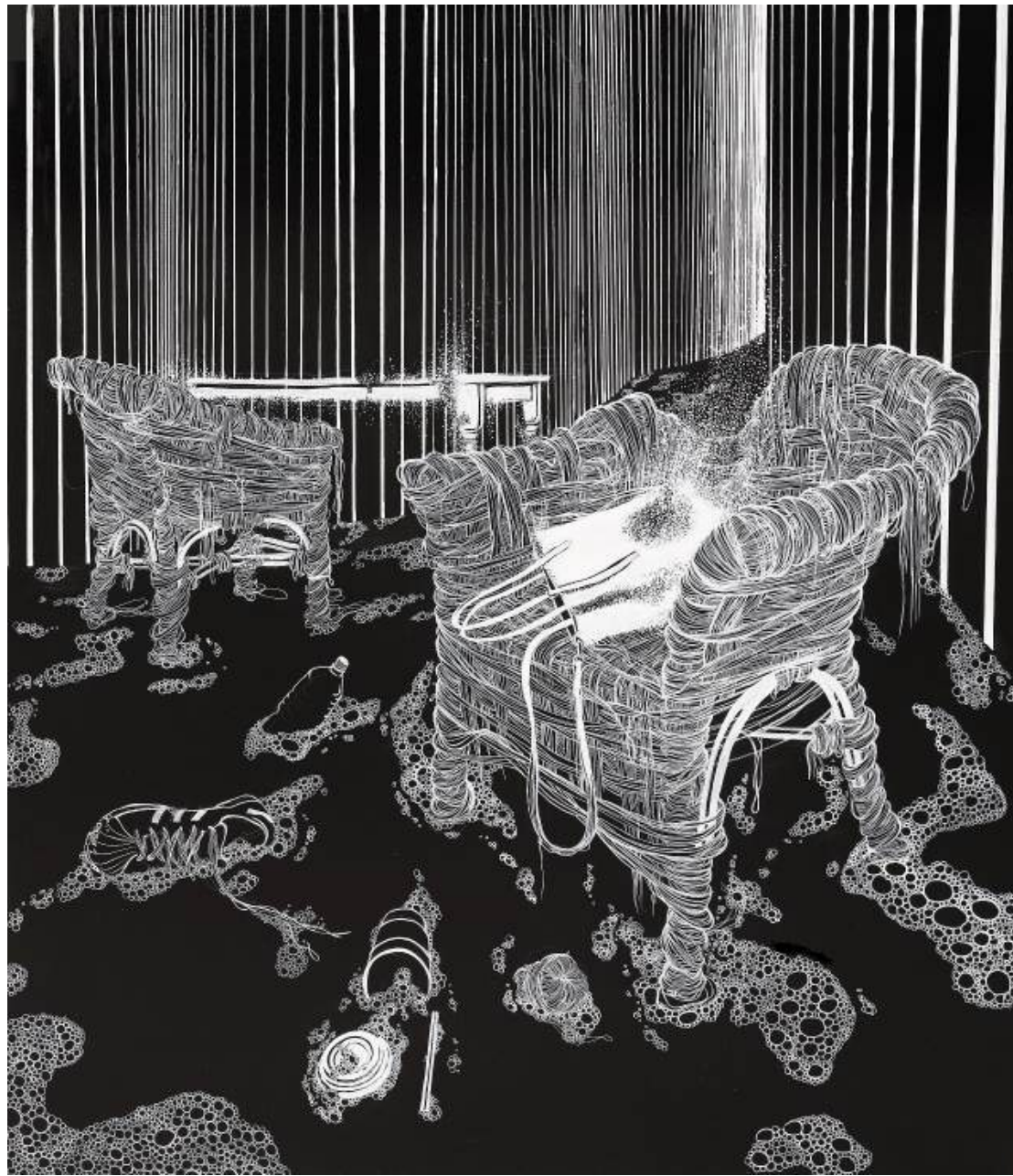
나무의 초상1,2,3,4_ acrylic on canvas_ 72.2X60.6cmx4 _ 2024

막막한 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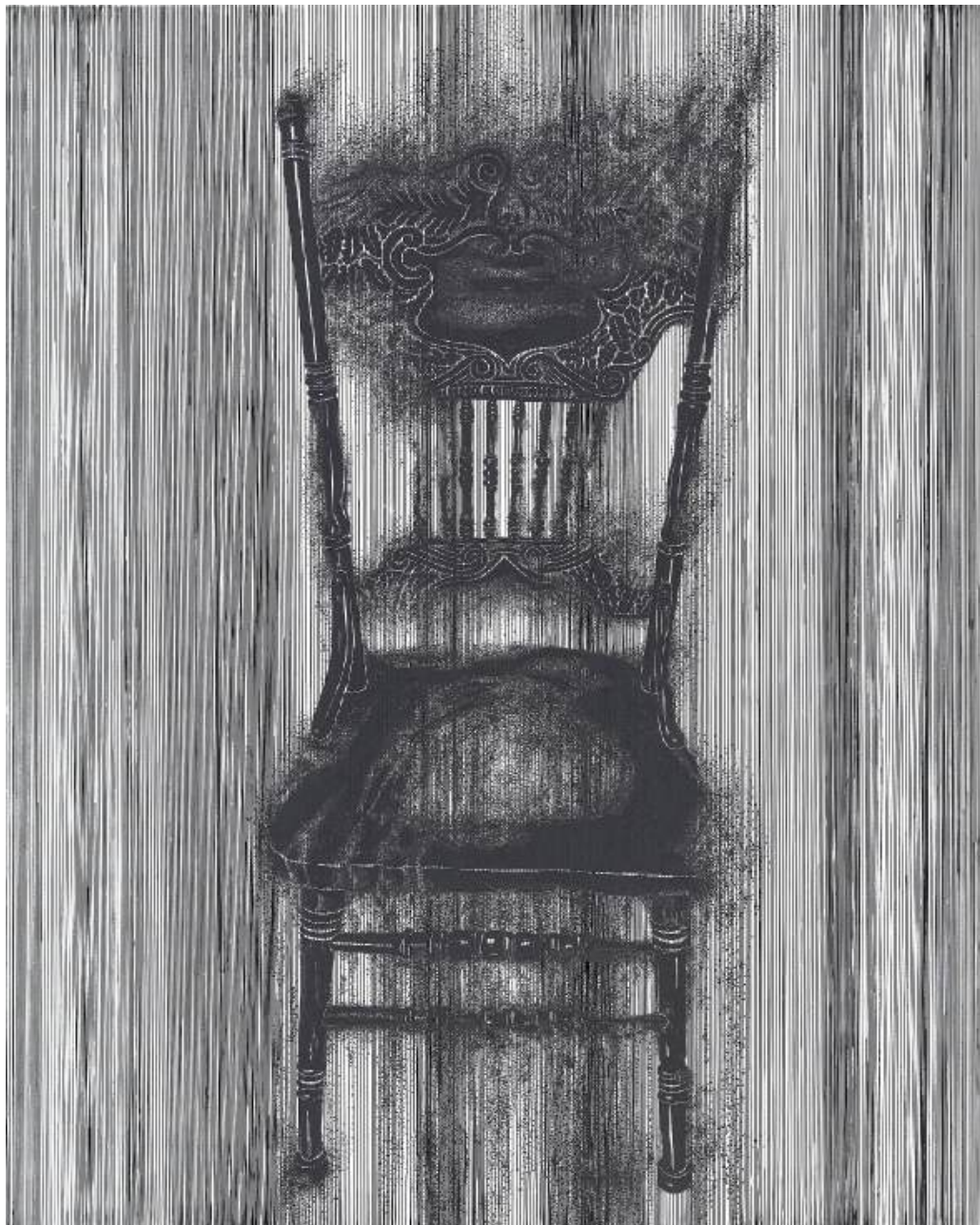
현실에서 느끼는 막막한 감정과 피할 수 없는 불안의 시간들, 길지만 어느 순간 지나쳐버린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막막한 찰나_ acrylic on canvas_ 91cm×72.7cm, _ 2023



막막한 찰나2_ 53x45.5cm Acrylic on canvas__ 2024



사라지는 것의 순간_ acrylic and acrylic marker on canvas_ 116.8×91cm , 2020



사이의 시간_ acrylic on canvas_ 91cm×72.7cm, _ 2023